

국어 기출해설 (B책형)

해설 - 이재현 교수(원플스)

1. 다음은 ‘직원들의 기부 참여도, 어떻게 높일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기 위한 계획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글쓰기 계획>

- 현상 : 우리 회사 직원들의 기부 참여도가 낮음
- 문제 의식 : 관심이 없어서일까? 방법을 몰라서일까?
- 조사 내용 : 기부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 직원들의 기부 참여 유형
- 조사 결과 : 기부 활동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은 높으나 | 직원들이 참여하는 기부 유형은 두세 가지로 한정되어 있음
- 결과 분석 : 인식과 참여의 괴리는 기부 유형에 대한 직원들의 정보 부족 때문임
- 서술 방향 : (㉠)

- ① 직원들의 실제 기부 참여도가 낮은 것을 지적하고, 그 이유로 특정 기부 유형에 대한 개인적 선호를 제시한다.
- ② 기부에 대한 직원들의 무관심을 지적하고, 기부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환기한다.
- ③ 기부 참여도가 낮았던 이유는 직원들이 다양한 기부 유형을 알지 못하기 때문임을 밝히고, 구체적인 참여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 ④ 직원들이 생각은 있지만 기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고, 의식과 실천의 합일을 촉구한다.

2. 다음은 어느 신문의 독자 투고 글이다.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그동안 피땀 어린 노력으로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룩해 왔다. 그 결실로 국민 소득이 2만 달러에 이르렀고 경제 성장률 또한 세계 16위에 있다. 하지만 과연 우리 국민성은 어떠한가. 아직도 차량 문틈 사이로 함부로 담배 꽂초를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 앞에 있는 쓰레기를 줍기는커녕 음식을 먹고 쓰레기를 그대로 두고 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 주택가에서 술을 마시고 고성방가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 출동한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일삼는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 있다. 아이의 손을 잡고 거리낌없이 무단횡단을 하는 아주머니들을 볼 때면 착잡한 마음마저 들기도 한다.

물론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로 이러한 무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할 뿐, 국민 모두의 마음속에 기초 질서 정신이 자리 잡지 않고는 올바른 질서를 만들어 낼 수 없는 것이다. 무질서라는 전통을 후손에게 물려줄 것인지 스스로 반성하고 지금 우리 앞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 2010년 11월 19일자 경남신문 독자 투고 —

- ① 경제 성장에 비해 국민성이 낮아 걱정이다.
- ②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로 무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

- ③ 기초 질서 정신은 작은 실천에서 비롯된다.
④ 기초 질서를 어기는 사람들이 많다.

3. 다음의 밑줄 친 ㉠, ㉡을 현대어로 옳게 바꾼 것은?

太子를 하늘히 ㉠ 골히사 兄이 ㅼ디 ㉡ 일어시 聖孫을 내시니이다.

—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제8장 중에서 —

- ① ㉠ 가리시어, ㉡ 이루어지시거늘
② ㉠ 가리시어, ㉡ 일어나시거늘
③ ㉠ 말씀하시어, ㉡ 이르시거늘
④ ㉠ 말씀하시어, ㉡ 일어나시거늘

4. 다음 중 신라의 향가가 아닌 것은?

- ① 천수대비가 ② 현화가
③ 처용가 ④ 숙세가

5. 다음 중 문장 부호와 그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운뎃점(·)은 열거된 여러 단위가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낸다.
- ② 쌍점(;)은 마침표의 일종으로 작은 제목 뒤에 간단한 설명을 붙일 때 쓰인다.
- ③ 줄표(—)는 이미 말한 내용을 다른 말로 부연하거나 보충할 때 쓰인다.
- ④ 대괄호([])는 묶음표 안의 말이 바깥 말과 음이 다를 때 쓰인다.

6. 다음 중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 ① 오늘은 비가 올 듯하다.
- ② 당신 종을 대로 하십시오.
- ③ 아기는 아버지를 빠다 박은 듯 닮았다.
- ④ 자기가 아는 만큼 보인다.

7. 다음 <보기> 가운데 우리말의 관형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 기> -

- ㉠ 관형어는 명사, 대명사, 수사와 같은 체언류를 꾸미는 문장 성분이다.
 ㉡ 명사는 그대로 관형어가 될 수 있다.
 ㉢ 동사나 형용사도 관형어가 될 수 있다.
 ㉣ 조사 ‘의’는 관형어를 만드는 중요한 격조사이다.

- ① ㄅ, ㄌ, ㄍ, ㄉ
② ㄅ, ㄍ, ㄉ
③ ㄌ, ㄍ
④ ㄌ, ㄉ

8. 국어의 음운 현상에는 대치, 탈락, 첨가, 축약, 도치가 있다. 다음에 제시된 단어들 중 동일한 음운 현상이 나타나는 것끼리 묶인 것은?

㉠ 굳이	㉡ 끊더라	㉢ 뒷일	㉣ 무릎
㉤ 배꼽(<빋복>)	㉥ 싫어도	㉦ 있지	㉧ 잡히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9. 다음 중 파생어끼리 짝지어진 것은?

① 동화책 — 책상

② 맨손 — 울보

③ 시동생 — 어깨동무

④ 크다 — 복스럽다

10. 다음 중 <보기>에서 보이는 오류의 유형과 같은 오류가 있는 것은?

<보 기>

“그 놈은 나쁜 놈이니 사형을 당해야 해. 사형을 당하는 걸 보면 나쁜 놈이야.”

① 분열은 화합으로 극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열을 치유하기 위해 모두가 하나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② 국민의 67%가 사형 제도에 찬성했다. 그러므로 사형 제도는 정당하다.

③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국어 성적이 좋은 걸 보니 혜림이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구나.

④ 이번 학생 회장 선거에서 나를 뽑지 않은 것으로 보아 너는 나를 아주 싫어하는구나.

11. 다음 중 밑줄 친 단어의 사용이 옳지 않은 것은?

① 선을 반듯이 그어라.

② 눈을 감고 분노를 삼켰다.

③ 너 왜 그렇게 내 속을 씩히느냐?

④ 사우나에서 눈을 지그시 감고 앉아 있었다.

12.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① 먹을 만큼 털어서 집에 갈거야.

② 이게 얼마만인가?

③ 저 도서관만큼 크게 지으시오.

④ 제 27대 국회의원

13. 다음 중 문장의 짜임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 ① 그 일은 하기가 쉽지 않다.
- ② 봄이 오면 꽃이 핀다.
- ③ 철수는 발에 땀이 나도록 뛰었다.
- ④ 우리는 인간이 존귀하다고 믿는다.

14. 다음 괄호 안에 병기된 한자 중에 ‘地’자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김 주사는 심지(心地)가 고운 사람이다.
- ② ‘입추의 여지(餘地)가 없다.’라는 말은 가을과 상관없다.
- ③ 황룡사지는 절터라기보다는 궁지(宮地)라는 주장이 있다.
- ④ 풍년으로 산지(產地)의 쌀값이 전년보다 6% 정도 떨어졌다.

15. 다음 중 ‘불법(佛法)에 귀의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사자성어는?

- ① 匹未匹婦 ② 樵童汲婦
- ③ 夫唱婦隨 ④ 善男善女

16. 서울에 있는 대표적인 문학관이나 작가의 유적과 그 소재지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 ① 종로구의 윤동주 문학관
- ② 용산구의 황순원 문학관
- ③ 성북구의 만해 한용운 심우장
- ④ 도봉구의 김수영 문학관

17. 다음의 밑줄 친 부분은 두 개의 낱말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낱말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 이상을 지녔다고 볼 수 없는 것은?

- ① 남이 말하는데 겉다리 들지 마!
- ② 길눈이 밝아서 어디든 잘 찾아 간다.
- ③ 그간의 노력으로 회사의 틀을 잡아 놓았다고 볼 수 있다.
- ④ 청년의 입에 거품이 일고 네 활개가 뒤틀리고 있었다.

18. 다음 글에서 말하는 ‘이 작품’은?

그가 창씨개명계를 제출한 것은 이 작품을 쓴 지 닷새 만이다. 일본 유학을 결정하고 그걸 위해선 자신의 손으로 창씨개명계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각오했을 때, 그 뼈아픈 욕됨으로 인해 쓰여진 것이 곧 이 작품이라는 주장이다. 이 시는 오랫동안 역사 의식이 내포된 자기 성찰의 시라는 정도의 일반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그의 시 중에서 가장

구체적인 현실에 의거하고 있는 강력한 저항시가 바로 이 시이다.

- ① 스물세 해 동안 나를 키운 건 팔할이 바람이다./세상은 가도가도 부끄럽기만 하더라./어떤 이는 내 눈에서 죄인을 읽고 가고/어떤 이는 내 입에서 천치를 읽고 가나/나는 아무것도 누우치진 않을란다.
- ②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오다.//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서릿발 칼날진 그 위에 서다.//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한 발 재겨 디딜 곳조차 없다.
- ③ 풀이 눕는다./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풀은 눕고/드디어 울었다./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다시 누웠다.//풀이 눕는다./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바람보다도 먼저 일어난다.
- ④ 파란 녹이 긴 구리 거울 속에/내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만 이십사 년 일 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19. 다음 고전시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내 님물 그리스와 우니다니
산(山) 접동새 난 이슥흐요이다.
아니시며 거츠르신들 아으
잔월효성(殘月曉星)이 아루시리이다.
녁시라도 님은 혼딕 녀저라 아으
벼기더시니 뉘러시니잇가
과(過)도 허물도 천만(千萬) 업소이다.
물헛마리신더
술웃븐더 아으
니미 나를 흐마 니즈시니잇가.
아소 님하, 도람 드르샤 괴오쇼셔.

-정서, '정과정'-

- ① 현재 자신의 처지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정을 담고 있다.
- ②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 대한 담담한 마음을 담고 있다.
- ③ 다가올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심경을 담고 있다.
- ④ 일상적인 소재를 통해서 삶의 교훈을 담고 있다.

20. 다음 밑줄 친 단어 중 맞춤법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그는 밥을 몇 순가락 뜨다가 밥상을 물렸다.
- ② 이번 수해로 우리 마을은 적잖은 피해를 봤다.
- ③ 집은 허름하지만 아까 본 집보다 가격이 만만찮다.
- ④ 그는 끝까지 그 일을 말끔케 처리하였다.

【 2015년도 6월 13일 시행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 7급】

- (B)책형 (정답) -

문항	1	2	3	4	5	6	7	8	9	10
정답	㉓	㉒	㉑	㉔	㉒	㉑	㉑	㉒	㉒	㉑
문항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정답	㉓	㉓	㉒	㉓	㉔	㉒	㉔	㉔	㉑	㉓

1. 답 ㉓

조사 결과에서 ‘기부 활동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은 높으나 직원들의 참여 유형은 두세 가지로 한정되어 있음’으로 나와 있고, 그에 대한 분석에서 ‘인식과 참여의 괴리는 직원들의 정보 부족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직원들의 기부 참여도가 낮았던 이유는 직원들이 기부 유형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고 기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나 프로그램들을 제시해주는 내용으로 서술 방향을 잡는 것이 좋다. 선택항 ㉓의 내용이 ㉑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 ㉑ 현재 제시된 내용만 보서는 직원들의 낮은 기부 참여도와 개인적 선호 사이에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 ㉒ 주어진 계획서에 ‘무관심’이란 말이 전혀 언급된 바 없다.
- ㉔ 주어진 계획서를 볼 때 직원들의 기부 참여를 ‘적극적이다’ 또는 ‘소극적이다’와 같은 이분법적 형태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2. 답 ㉒

주어진 지문의 둘째 단락 처음 부분을 보면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로 무질서를 바로잡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할 뿐 ... 올바른 질서를 만들어 낼 수 없다.’로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선택항 ㉒과 같은 내용은 옳지 못하다.

[오답 풀이]

- ㉑ 첫째 단락에서 언급하고 있다. ‘경제 성장률은 세계 16위지만 우리 국민성은 그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 ㉓ 둘째 단락 마지막 부분에서 ‘기초 질서 정신은 우리 앞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 ㉔ 첫째 단락의 뒷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례들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3. 답 ㉑

지문은 「용비어천가」 제8장 전절의 내용인데 현대어로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 태자(계력)를 하늘이 ㉑가리시어, 그 형(계력의 만형 태백)의 뜻(아우 계력이 아버지의 뜻을 받아 나라를 다스리게 하려는 뜻)이 ㉒이루어지시거늘, 성손(후의 주나라 무왕)을 (하늘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㉑ 굴희샤 : 가리시어. 기본형 ‘굴히다’에서 ‘가리다’가 된 것은 ㅎ탈락과 단모음화가 같이 일어난 현상이고, ‘굴희샤’는 ‘굴희샤야’에서 어미 기능을 하던 ‘-아’가 탈락한 형태였다.

㉒ 일어시늘 : 이루어지시거늘. 기본형은 ‘일다’, 곧 ‘이루어지다[成]’의 본말이다.

cf. 날다 : 15세기에 이 말은 ‘일어나다[起]’의 뜻으로 쓰여서 오늘날의 ‘일어나다’의 본말로 쓰였다.

[관련 고사]

※ 제시된 지문과 관련된 역사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의 주(周, B.C. 1046 ~ B.C. 256)나라는 건국되기 전 주 왕실은 상 나라 말기에 변방에 있던 제후국이었는데, 당시 제후였던 고공 단보(후에 추존되어 '태왕'이라 불림)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다. 맏이가 태백이었고, 둘째가 중용, 막내가 계력이었다. 고공 시대의 주가 이미 상 나라의 대부분을 지배하기에 이르자, 고공은 상 나라를 멸망시키고 나라를 세우려는 생각이 있었으나 맏아들 태백이 그 뜻을 따르지 않았다. 이에 고공은 둘째 중용을 건너뛰어 막내 계력에게 상 나라를 칠 것을 명하니 계력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었고, 이에 고공은 계력을 통하여 계력의 아들이면서 자신의 손자였던 창(昌)에게 주 나라를 맡기리라 생각하고 있었다. 태백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둘째 중용과 더불어 멀리 형만 땅으로 몸을 피하여 달아나 버렸다. 계력은 단보 치세에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고 그 아들 창(昌)이 단보의 뒤를 이어 제후에 올라 주 나라의 기틀을 닦았으니 후세에 그 아들 무왕(武王)이 자신의 아버지 창(昌)을 추존하여 문왕(文王)이라 하였고, 이를 주 나라의 시조로 하였다.

4. 답 ④

숙세가(宿世歌) : 2000년 부여 능산리 고분에서 출토된 목간 23개 중에 한 개에 적혀 있었던 사언 사구의 한시이다. 목간의 연대 측정 결과 7세기 초반의 것으로 밝혀지게 되었고 사언 사구의 형태가 백제 시대 가요 형식이며, 이두로 적혀 있는 점 때문에 현존 최고(最古)의 백제 노래로 평가받게 되었다. 원래 제목을 알 수가 없어 처음 발견하고 연구하였던 김영옥 서울시립대 교수가 목간에 적힌 시의 앞 두 글자인 '숙세(宿世)'를 따서 이름지었다. 기존에 '정음사'가 유일한 백제 가요라고 알려졌는데, 이것은 조선시대 <악학궤범>을 통해 중세국어로 정리되어 전해진 형태라서 원래의 형식을 온전하게 알 수가 없었던 단점이 있었는데, '숙세가'는 어느 정도 백제 시대 노래 형태를 그대로 알 수가 있게 나왔다는 점에서 학계에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 노래의 내용과 대략적인 풀이는 다음과 같다.[김영옥 교수의 풀이]

宿世結業 / 同生一處 / 是非相問 / 上拜白來

전생에서 맺은 업으로 / 이 세상에 함께 사니 / 시비를 가릴 양이면 / 부처님께 큰 절을 올리시게나.

[오답 풀이]

- ① 천수대비가 : '도천수대비가(禱千手大悲歌)'라고도 불리는 신라 경덕왕(재위: 742년 ~ 765년) 때 지은 10구체 형식의 이두 향가. 『삼국유사』에 실려 있다. 경덕왕 때 한기리에 살던 희명이란 여인의 아들이 다섯 살 되던 해에 그만 눈이 멀어 앞을 볼 수 없게 되자, 분황사 천수관음보살상 앞에서 이 노래를 지어 바치고 아이에게 부르게 하자 아이가 눈을 뗐다고 한다. 불교적인 노래이면서 주술적인 성격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
- ② 현화가 : 신라 성덕왕(재위: 702년 ~ 737년) 때 종친이었던 순정공(純貞公)이 강릉 태수로 부임하러 가는 도중에 바닷가에서 쉬고 있을 때 소를 끌고 가던 어느 노인이 순정공의 부인이었던 수로부인에게 꽃을 꺾어 바치면서 지어 불렀다는 4구체 형식의 향가.
- ③ 처용가 : 신라 헌강왕(재위 875년 ~ 885년) 때 처용이 자신의 아내를 흠모하고 동침한 역신을 쫓기 위해 불렀다는 8구체 형식의 향가. <악장가사(樂章歌詞)>에 실려 있다. 고려 시대로 넘어와서 고려 가요 '처용가'로도 계승되기도 했고, 조선 시대에는 궁중에서 '나례희'라는 이름의 무가로 연주되기도 하였다.

5. 답 ②

선택항 ②의 내용 중에서 두 군데가 틀렸다. 쌍점은 그 표시를 ':'와 같이 하는 것을 말하고 마침표의 한 종류로 보지 않는다. 원래 작은 제목 뒤에 간단한 설명을 붙일 때 쓰는 것은 맞다.

[더 알아보기]

※ 한글맞춤법에 제시된 쌍점(:)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표제 다음에 해당 항목을 들거나 설명을 붙일 때 쓴다.

문방사우: 종이, 붓, 먹, 벼루

일시: 2014년 10월 9일 10시

흔하진 않지만 두 자로 된 성씨도 있다.(예: 남궁, 선우, 황보)

올림표(#): 음의 높이를 반음 올릴 것을 지시한다.

(2) 회곡 등에서 대화 내용을 제시할 때 말하는 이와 말한 내용 사이에 쓴다.

김 과장: 난 못 참겠다.

아들: 아버지, 제발 제 말씀 좀 들어 보세요.

(3) 시와 분, 장과 절 등을 구별할 때 쓴다.

오전 10:20(오전 10시 20분)

두시언해 6:15(두시언해 제6권 제15장)

(4) 의존명사 ‘대’가 쓰일 자리에 쓴다.

65:60(65 대 60)

청군:백군(청군 대 백군)

[붙임] 쌍점의 앞은 붙여 쓰고 뒤는 띄어 쓴다. 다만, (3)과 (4)에서는 쌍점의 앞뒤를 붙여 쓴다.

6. 답 ①

듯하다 : 동사나 형용사, 또는 ‘이다’의 관형사형 뒤에 쓰여 앞말로 오는 용언이 뜻하는 어떠한 사건이나 상태 따위를 짐작하거나 추측함을 나타내는 말로 품사는 보조형용사이다.

[오답 풀이]

나머지는 모두 의존명사이다.

② 대로 : ㉠ 어떤 모양이나 상태와 같이. ㉡ 어떤 상태나 행동이 나타나는 그 즉시. ㉢ 어떤 상태나 행동이 나타나는 족족.

③ 듯 : ㉠ 또 다른 의존명사 ‘듯이’의 준말로 짐작이나 추측의 뜻을 나타내는 말. ㉡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지 아니한 것 같기도 함을 나타내는 말.

④ 만큼 : ㉠ 앞의 내용에 상당한 수량이나 정도임을 나타내는 말. ㉡ 뒤에 나오는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가 됨을 나타내는 말.

7. 답 ①

관형어는 체언 앞에서 체언의 뜻을 꾸며 주는 구실을 하는 문장 성분으로 관형사, 체언, 체언에 관형격 조사 ‘의’가 붙은 말, 동사와 형용사의 관형사형, 동사와 형용사의 명사형에 관형격 조사 ‘의’가 붙은 말 등이 바로 관형어가 된다. 주어진 <보기>의 항목 모두 관형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다.

8. 답 ②

문제에서 설명하고 있는 용어 중에서 낯설게 보이는 게 바로 ‘대치’가 아닐까 싶다. ‘음운의 대치’는 ‘음운의 교체’를 달리 이르는 말로, 여기에 음절 끝소리, 동화(자음동화·모음조화·구개음화 통칭), 경음화, 두음법칙이 모두 포함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 점에 유의하여 주어진 어휘들의 발음변화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굳이[구지] : 동화⇒대치, ㉡ 꿇더라[꾼터라] : 축약, ㉢ 뒷일[뒀닐] : 첨가, ㉣ 무릅[무릅] : 음절 끝소리⇒대치, ㉤ 배꼽(옛말은 ‘빚복’) : 도치, ㉥ 싫어도[시러도] : 탈락, ㉦ 있지[인찌] : 음절 끝소리⇒대치, ㉧ 잡히다[자피다] : 축약

따라서, 동일 음운 현상끼리 묶으면 다음과 같다.

※ 대치 : ㉠, ㉢, ㉦ [선택항 ②] / 도치 : ㉤ / 첨가 : ㉣ / 축약 : ㉡, ㉧ / 탈락 : ㉥

9. 답 ②

파생어끼리 짝지어진 것은 선택항 ②이다. 아래 표를 확인해 두자.

선택항	어휘와 분석		판단
①	동화책	동화(명사) + 책(명사)	합성어
	책상(冊床)	책(冊) + 상(床)	한자합성어
②	맨손	맨(‘다른 것이 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 손(명사)	파생어
	울보	울(동사 ‘울다’의 어근) + 보(‘사람’의 뜻을 더하고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파생어
③	시동생	시(媿 : ‘남편의’의 뜻을 나타내는 접두사) + 동생(명사)	파생어

	어깨동무	어깨(명사) + 동무(명사)	합성어
④	크다	- 분석 없음 -	단일어
	복스럽다	복(福 : 명사) + 스럽다(파생 접미사)	파생어

10. 답 ①

제시된 <보기>에서 범하고 있는 오류는 순환 논리의 오류인데 이것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주장에 해당하는 문장이나 주장이 포함하고 있는 어휘들만 되풀이해서 나열하는 데서 생기는 오류를 말한다. 이 <보기>와 같은 형태의 오류를 보이고 있는 선택항은 ①이다.

[오답 풀이]

- ②와 ③ 불확실한 증거를 기반으로 한 데서 나오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④ 논의의 대상을 흑(黑) 아니면 백(白), 선(善) 아니면 악(惡)이라는 방식의 극단화된 두 가지 정의로만 구분함으로써 벌어지는 흑백 논리의 오류.

11. 답 ③

썩히느냐 (X) → 썩이느냐 (O) : ‘걱정이나 근심 따위로 마음이 몹시 괴로운 상태가 되다.’의 뜻을 지닌 동사 ‘썩다’의 사동형태는 ‘썩이다’가 맞다.

[더 알아보기]

‘썩이다’와 ‘썩히다’는 모두 동사 ‘썩다’의 사동형이지만, 쓰임은 완전히 다르다.

썩이다	썩히다
· 이제 부모 속 좀 작작 <u>썩여라</u>. · 너 왜 그렇게 내 속을 <u>썩이느냐</u>?	· 음식을 <u>썩혀</u> 거름을 만든다. · 그는 시골구석에서 재능을 <u>썩히고</u> 있다. · 기술자가 없어서 고가의 장비를 <u>썩히고</u> 있다. · 그 사람, 재판도 안 하고 감옥에 넣어 <u>썩힐</u> 수가 있어.

[오답 풀이]

나머지 선택항은 비교되는 어휘들과 그 의미와 쓰임에 주의해야 한다.

- ① 반듯이 : 비뚤어지거나 기울거나 굽지 않고 바르게.
 <비교> 반드시 : 꼭, 틀림없이. → 비가 오는 날이면 반드시 허리가 쭈신다.
 ② 삭이다 : ‘긴장이나 화가 풀려 마음이 가라앉다.’의 뜻을 지닌 동사 ‘삭다’의 사동형.
 <비교> 삭히다 : ‘김치나 젓갈 따위의 음식물이 발효되어 맛이 들다.’의 뜻을 지닌 동사 ‘삭다’의 사동형.
 → 밥을 삭혀 끓인 감주.
 ④ 지그시 : 슬며시 힘을 주는 모양.
 <비교> 지긋이 : 나이가 비교적 많아서 듬직하게. → 그는 나이가 지긋이 들어 보인다.

12. 답 ③

각 품사는 서로 띄어 쓰고 조사와 어미는 앞말에 붙여 쓴다는 원칙에 입각할 때 띄어쓰기가 옳은 문장은 선택항 ③이다.

저	✓	도서관	만큼	✓	크	게	✓	지	으시	오
관형사		명사	조사		형용사	연결 어미		동사 어간 (스불규칙)	높임 선어말어미	종결 어미

[오답 풀이]

각 문장에서 틀린 부분만 확인해 보자.

- ① 갈거야 (X) → 갈 거야 (O) :

가	ㄹ	√	거	야
동사 어간	관형사형 어미		의존명사	종결 어미

② 얼마만인가 (X) → 얼마 만인가 (O) :

얼마	√	만	이	ㄴ가
명사		의존명사	서술격 조사 '이다'의 어근	종결 어미

④ 제 27대 (X) → 제27대 (O) : 차례를 뜻하는 접두사 '제(第)'는 보통 한자어 수사나 아라비아 숫자 앞에 붙여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뒤에 있는 '대'는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본래 한자어 수사와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아라비아 숫자가 앞에 나올 때는 붙여 쓸 수가 있음에 주의한다.

13. 답 ②

선택항 모두 문장의 구조는 접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②의 경우만 이어진 문장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안은 문장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자세히 알아두기]

※ 각 선택항에서 제시된 문장들의 구조 파악

선택항	문장의 종류	문장의 구조 분석	비고
①	안은 문장	그 일은 <u>하기가 쉽지 않다</u> .	서술절을 안은 문장
②	이어진 문장	봄이 <u>오면</u> 꽃이 핀다.	양보절로 이어진 문장
③	안은 문장	철수는 <u>발에 땀이 나도록</u> 뛰었다.	부사절을 안은 문장
④	안은 문장	우리는 <u>인간이 존귀하다고</u> 믿는다.	인용절을 안은 문장

14. 답 ③

'궁지'의 한자를 다음과 같이 고쳐야 옳다. : 宮地 (X) → 宮趾(집 궁, 발 지) (O) : '궁궐터'를 다르게 부르는 말.

[오답 풀이]

선택항	어휘	훈과 음	의미
①	심지(心地)	마음 심, 땅 지	마음의 본바탕.
②	여지(餘地)	남을 여, 땅 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나 희망.
④	산지(產地)	남을 산, 땅 지	(가축이나 채소 따위가) 생산되어 나오는 곳.

15. 답 ④

선남선녀(善男善女 : 착할 선, 사내 남, 착할 선, 계집 녀) :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이 말의 뜻을 세 가지로 풀어서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 ㉠ 성품이 착한 남자와 여자란 뜻으로, 착하고 어진 사람들을 이르는 말.
- ㉡ 곱게 단장을 한 남자와 여자를 이르는 말.
- ㉢ 『불교용어』 불법에 귀의한 남자와 여자를 이르는 말.

[오답 풀이]

선택항	한자성어	훈과 음 : 의미
①	필부필부 (匹夫匹婦)	필 필, 지아비 부, 필 필, 지어미 부 : ‘평범한 남녀’를 뜻하는 말.
②	초동급부 (樵童汲婦)	떨나무 초, 아이 동, 물 길을 급, 지어미 부 : 떨나무를 하는 아이와 물을 길는 아내라는 뜻으로, 평범한 사람을 이르는 말.
③	부창부수 (夫唱婦隨)	지아비 부, 노래 부를 창, 지어미 부, 따를 수 : 남편이 주장하고 아내가 이에 잘 따름. 또는 부부 사이의 그런 도리.

16. 답 ②

황순원 문학관 :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 2009년에 황순원 선생의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 선생의 묘역 일대를 문학촌으로 조성하여 그 이름을 ‘소나기마을’이라 정하고 마을 동편(황순원 선생 묘의 바로 오른쪽에 조성)에 지상 3층 규모의 문학관을 건립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황순원 문학관’이다. 본래 황순원 선생은 평안남도 대동군 재경면(현재는 평양시로 편입)에서 나고 자라셨는데, 생전에 제자들과 함께 양평 나들이를 자주 하였고 소설 <소나기>에도 양평에 관한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선생이 생전에 애착을 많이 가지셨던 곳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나머지는 모두 서울에 위치한다.

- ① 윤동주 문학관 :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자하문(紫霞門)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2010년에 개관하였다. (윤동주 시인의 ‘창씨개명설’과 관련해서는 문제 18번에서 다시 설명하겠음)
- ③ 심우장(尋牛莊) : 만해 한용운 선생이 1933년부터 1944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살았던 곳으로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에 위치하고 있다.
- ④ 김수영 문학관 : 김수영 시인이 생전에 살았고 현재 묻혀 있는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에 위치한 문학관. 2013년에 개관하였다. 문학관 지척에는 김수영 시인이 묻혀 있는 4.19묘지와 연산군묘, 정의공주묘 등의 사적지가 있다.

17. 답 ④

이 문제의 의미를 쉽게 풀이하면 ‘관용구(慣用句)’가 아닌 것을 고르는 것이다. ‘관용구’란 두 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그 단어들의 의미만으로는 전체의 의미를 알 수 없는, 특수한 의미를 나타내는 어구(語句)를 말하는데, 선택항 ④의 경우 명사인 ‘활개’와 동사인 ‘튀들리다’가 단순히 나열되어 있을 뿐 다른 의미의 관용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참고> 활개는 사람에게 쓸 경우에는 ‘어깨에서 팔까지의 양쪽 부위 혹은 궁둥이에서 다리까지의 양쪽 부위’를 뜻하고 동물에게 쓸 경우에는 ‘새의 두 날개’를 일컫는 말인데 이 말이 관용구로 쓰일 때는 다음의 의미로 사용된다.

관용구	의미
활개를 젓다	두 팔을 서로 어긋나게 번갈아 앞뒤로 흔들며 걷다.
활개를 치다	㉠ 힘차게 두 팔을 앞뒤로 어긋나게 흔들며 걷다. ㉡ 의기양양하게 또는 제 세상인 듯 함부로 거들먹거리며 행동하다. ㉢ 부정적인 물건이나 행동 따위가 크게 성행하다.
활개를 펴다	㉠ 팔다리를 쭉 펴다. ㉡ 남의 눈치를 살피지 아니하고 떳떳하게 기를 펴다.

[오답 풀이]

나머지는 모두 관용구로 쓰인 말들이다.

선택항	관용구	의미
-----	-----	----

①	결다리 들다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참견하여 말하다.
②	길눈이 밝다	한두 번 가 본 길을 잊지 않고 찾아갈 만큼 길을 잘 기억하다.
③	틀을 잡다	일정한 형태나 구성을 갖추다.

18. 답 ④

주어진 글의 내용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들이 많을 것이다. 윤동주 시인의 집안은 1941년 말에 성씨를 '윤(尹)'에서 '히라누마(平沼)'로 창씨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당시 윤동주 시인은 연희전문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는데 그때 일본 유학을 준비하게 되었고 그의 고향 집에서는 윤동주 시인의 유학길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성씨를 '히라누마 씨'로 창씨개명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창씨개명은 결과적으로 시인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 없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의 이러한 행적과 관련하여 본관 파평 윤씨 측에서 보관하고 있는 당시 연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윤동주가 전시(戰時 : 태평양 전쟁)로 인하여 학제가 단축되어 본래의 일정보다 3개월 앞당겨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유학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1941년 말 고향 집(윤동주 시인은 중국 연변 용정에서 출생했음)에서, 일제의 탄압과 그의 도일 수속을 위해 성씨를 '히라누마(平沼)'로 창씨했다...' 개명 직후 시인은 이 일로 매우 괴로웠다고 전한다. 결국 창씨개명계를 내기 닷새 전에 그에 따른 고통과 참담한 비애를 시로 남겼는데 그것이 바로 '참회록'이라고 한다. [선택항 ④의 작품] 윤동주 시인의 창씨개명설은 해방 이후에는 알려지지 않았다가 1990년대에 들어와서 알려지게 되면서 학계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2004년 10월 18일자 조선일보 지면에 게재되면서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으며, 결국 2005년 이후로 그 언급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

[④의 작품 더 알아보기]

- (ㄱ) 갈래 : 자유시, 서정시
 (ㄴ) 성격 : 반성적, 고백적, 참여적, 자기 성찰적, 미래지향적
 (ㄷ) 표현 : 역사 의식의 표출, 내면적 자아와 대응, 자기 고백과 반성.
 (ㄹ) 어조 : 독백적 어조. ⇒ 자기 성찰적 태도를 진솔하게 표현한 작품.
 (시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정서 : 치욕, 부끄러움, 자학...)
 (ㄴ) 주제 :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부끄러운 자아의 반성.
 (ㄷ) 주제 :
 ㉠ 자기 반성을 통한 순결성 추구.
 ㉡ 역사 속 자아 성찰과 고난 극복 의지 표출.
 ㉢ 창씨개명에 따른 자신의 삶에 대한 참회와 밝은 역사에 대한 염원.
 ㉣ 식민 치하에서 옥된 삶을 영위한 자신에 대한 자책과 울분·회의·고독.
 (ㄱ) 출전 : 유고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1948)

[오답 풀이]

- ① 서정주 시인(기록상 1915년 5월 18일 출생, 2000년 12월 24일 숙환으로 별세)의 시 '자화상(自畫像)'. 1935년 <시건설(詩建設)>이라는 잡지에 발표하면서 등단하였다. 알려져 있는 출생 시기에서 계산하면 시인의 나이 스물이 된 시점에 발표된 작품이지만, 시어로 등장하는 '스물세 해'를 토대로 볼 때 시인의 출생시기는 1912년 이전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시는 시인의 유년 시절의 경험을 소재로 성인이 된 시점에서 과거를 성찰하고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윤동주 시인의 친일 논란과는 다르게, 서정주 시인의 친일 행적은 현재에도 매우 뚜렷하게 전해지고 있다. 그는 일제 말기에 다쓰시로 시즈오(達城靜雄)로 창씨개명을 하면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 ② 이육사의 시 '절정'. 1940년 <문장>에 발표되었다. 일제 시대 조국을 떠나 만주 지방을 떠돌아야 했던 우리 민족의 한이 드러나고 있는 작품이다.
- ③ 김수영 시인의 작품 '풀'. 1968년 <창작과 비평>을 통해 발표된 시인의 유고작이다. 시인은 이 시가 발표되고 얼마 안 돼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19. 답 ①

지문으로 출제된 이 작품은 고려 후기 정서(鄭絃, 생물연대 미상)가 지은 고려가요 '정과정(鄭瓜亭)'이다.

이 노래의 원래 제목이 무엇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단지, 정서가 자신의 호를 ‘과정(瓜亭)’이라고 지었기 때문에 후세 사람들이 이 노래를 ‘정과정’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고, 곡조의 이름을 따서 ‘삼진작(三眞勺)’이라고도 한다. 정서가 역모(逆謀)에 가담하였다는 누명을 쓰고 귀양을 가게 되자, 당시 임금이었던 의종(毅宗)은 나중에 다시 부르겠다고 하고서는 그를 귀양보냈는데 정서가 아무리 기다려도 그 어떠한 소식도 들을 수 없었다고 한다. 이 작품의 첫부분에서 입(=의종)을 그리워하며 울며 떠돌아다니는 자신의 신세를 ‘접동새(=두견새)’의 모습에 비유함으로써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동시에,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 현재의 처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심정을 담아 이 작품을 지었다고 한다. 노래의 가사가 매우 구슬프면서도 아름답다 하여 사람들이 즐겨 부르게 되었고, 후일 무신정변이 일어나서 의종이 폐위되고 그 뒤를 명종이 잇게 되면서 다시금 정계에 복귀하게 되었다고 전한다.

20. 답 ③

만만찮다 (X) → 만만찮다 (O) : ‘만만하지 않다’가 줄어든 말. ‘하다’가 붙어서 만들어진 말이 줄어들 때에는 ‘-하-’의 앞글자의 받침이 무성 파열음 ‘ㄱ, ㄷ, ㅂ’로 끝나는 경우 ‘-하-’가 통째로 떨어지고, 받침이 모음이나 유성음 ‘ㄴ, ㄹ, ㅇ’으로 끝나는 경우 ‘ㄷ’만 떨어지고 ‘ㅎ’이 뒤에 오는 글자의 첫소리와 결합하여 그 발음이 축약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만만하지 않다’는 ‘만만치 않다’가 되고, 여기서 다시 ‘-치’와 ‘않-’이 줄어들어서 ‘만만찮다’로 바뀐 것이다.

[알아두기]

한글맞춤법 규정에서 ‘-잖-’과 ‘-찮-’을 정리해 두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잖-’ 계열	‘-찮-’ 계열
갑갑잖다(갑갑하지 않다), 귀찮잖다(귀찮지 않다), 그렇잖다(그렇지 않다), 깔밋잖다(깔밋하지 않다), 깨끗잖다(깨끗하지 않다), 남부럽잖다(남부럽지 않다), 넉넉잖다(넉넉하지 않다), 답답잖다(답답하지 않다), 두렵잖다(두렵지 않다), 많잖다(많지 않다), 못잖다(못지 않다), 예사롭잖다(예사롭지 않다), 의롭잖다(의롭지 않다), 의젓잖다(의젓하지 않다), 익숙잖다(익숙지 않다), 적잖다(적지 않다), 점잖잖다(점잖지 않다)	대단찮다(대단하지 않다), 만만찮다(만만하지 않다), 변변찮다(변변하지 않다), 성실찮다(성실하지 않다), 시원찮다(시원하지 않다), 심심찮다(심심하지 않다), 평범찮다(평범하지 않다), 허술찮다(허술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④ 말끔케 : ‘말끔하게’가 줄어든 말. 한글맞춤법 제40항의 규정 ‘어간의 끝음절 ‘하’의 ‘ㄷ’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될 적에는 거센소리로 적는다.’에 근거하여 이렇게 표기한다.